

自我尊重感이 衣服行動에 미치는 影響

—男·女 高校生을 中心으로—

金 順 九·尹 鶴 子

釜山大學校 家政大學 衣類學科

The Influence of Self-Esteem on the Clothing Behavior among High School Students

Soon-Ku Kim · Hak-Ja Yoon

Dept. of Clothing & Textile, College of Home Economics, Pusan National University

(1985. 10. 25 접수)

Abstract

This study was undertaken to explor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ersonality characteristic (the self-esteem) and the clothing behaviors according to the sex and the five environmental variables.

This study was designed with the hypothetic model regarding the age and the five environmental variables as Independent Variable, the self-esteem as Intervening Variable, the eight clothing behaviors as Dependent Variable.

For the testing hypothesis, the questionnaires were administered to 335 high school boys and 308 high school girls in Pusan. The data was analyzed statistically at the B.N.U. Computer Center using the Path Analysis (by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Method).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There was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self-esteem according to the sex. Boys had higher scores than girls.

2. There was no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the self-esteem and all the environmental variables of this study.

3.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clothing behavior subscales according to the sex. Girls had higher scores than boys in every clothing behavior subscales.

4. There were partial relationship between the clothing behavior subscales and the environmental variables.

5. There was a highly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the self-esteem and the clothing behavior subscales except Comfort and Modesty.

A negative significant subscale were Interest, Psychological Dependence, Social Approval

and Special Attention.

6. There were positively significant relationship among the clothing behavior subscales except Modesty-Aesthetics, Modesty-Interest, Modesty-Psychological Dependence and Modesty-Special Attention.

I. 緒 論

人間은 태어난 순간부터 그 자신이 원하던 원하지 않은 被服이라는 것에 싸여 그의 生을 출발하게 되며 이러한 衣服의 必要性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하여 의문을 가져왔다. 衣服의 動機理論과 衣服과 社會 및 衣服과 個人과의 關聯性에 관한 研究가 신체의 일부로서 認識되는 衣服이 個體의 欲求를 표현하는 수단임을 보여준다. 外貌는 自己確立과 維持를 위해 生活만큼이나 중요하며 '오늘날 衣服은 基本的인 社會的 役割 수행이 강조되고 있다'¹⁾. Ryan은 衣服이 自我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여 衣服은 身體的 自我概念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또한 自我尊重感과 他人으로부터의 受容을 조정하는 수단이므로 個體의 特性이 衣服에 미치는 영향은 중요하다고 언급했다.²⁾ 이러한 衣服은 어느 연령층에서나 그들의 生活相을 반영하고 있으나 정신적인 면에서 아직도 抽象的인 思考보다는 具體的인 對象에 대한 이해가 쉬우므로 外形으로 나타나는 外貌와 衣服에 대하여 다른 어느 시기보다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청소년기에서는 몸맵시나 얼굴의 결합이 불안의 원인이 되기도 하므로³⁾ 이 시기의 衣服決定은 性格形成에 중요하다고 여겨지며 특히 自信感, 自我實現性 및 成就感과 밀접한 관련을 보이는 自我尊重感을 衣服行動과 관련시켜 다루는 考察은 그 意義가 있을 것으로 여겨져 本 研究에서는 청소년의 性別과 家庭環境變因이 性格特性中 自我尊重感에 미치는 영향과 自我尊重感이 衣服行動에 미치는 영향을 경로분석에 의해 알아보려고 한다.

II. 理論的 背景

1. 靑少年의 衣服行動

靑少年期는 아동기로부터 성인기로 이행하는 과도기로서 이 시기에는 외형으로 나타나고 명백히 알 수 있는 것에 관심을 두며 자기 자신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또래집단으로부터 인정받고 受容되기를 원하게 되고 이로써 일시적이라도 그의 自我를 통합시켜 社會

的 主體를 만들고 유지하고자 한다. 따라서 또래집단에 수용되고 기대되는 衣服이나 外貌에 同調하려는 욕구가 커져 의복이 同調的 手段으로써 중요하다⁴⁾. 친구들간의 인기에도 영향을 주며 친구를 선택하는 요인으로도 외모가 중요함을 밝히고 있다.^{5,6)} 또한 동조성과 함께 타인에게 자신의 신체적 변화를 감추려고 지나치게 정숙하여져 의복의 정숙성이 극히 높으며⁷⁾ 외모에 자신이 있으면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리나 외모에 자신이 없으면 활동참여를 회피하기도 한다고 했다⁸⁾. 한편 지도력과 의복행동과의 연구에서는 지도력이 강한 청소년은 집단의 인정을 받기 위해 초기에는 집단에 동조하나 인정 후에는 자신의 의복을 구태여 집단에 동조하거나 과시하려고는 않지만 의복에 대한 흥미가 높다는 것이 밝혀져 지도력과 관련을 시사했다.⁹⁾

2. 自我尊重感과 衣服行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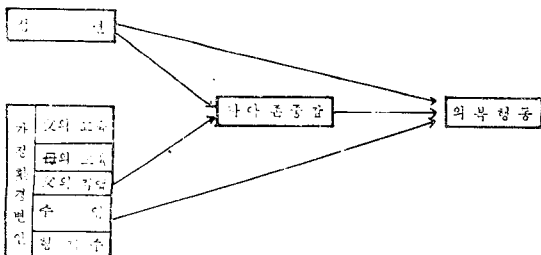
自我가 형성되고 확인되는 外貌의 한 측면이며 自我의 한 구성요소인 衣服은 自我像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Ryan에 의하면 衣服은 신체적 자아개념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自我尊重感과 他人으로부터의 受容을 조정하는 하나의 수단이고 외모상의 個性은 자신감과 個人的 確信의 표현이라 했다.⁵⁾ Humphrey¹⁰⁾ 등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불안정한 자아를 가진 사람일수록 衣服實驗과 흥미의 점수가 낮고 自我概念과 衣服行動間에 가장 크게 작용하는 요소가 自我尊重感임을 밝혔다. Drake¹¹⁾와 Ford¹⁰⁾는 自我尊重感이 높은 여학생이 낮은 학생보다 衣服實驗을 즐기며 흥미가 높고 Creekmore¹¹⁾에서도 같은 결과를 보였다. 또한 Parrish¹²⁾는 청소년의 衣服 同調性和 自我知覺과의 관련을 연구하여 자아지각이 낮을수록 집단에 수용되고자 집단의 衣服에 동조하는 경향이 높았다고 李京孫外¹³⁾은 총자아긍정 및 자아에 대한 자각의 정도가 의복 만족도와 正的임을 밝혔다.

3. 性別과 家庭環境的變因에 따른 衣服行動

추종성과 개성의 연구에서 Horn¹⁴⁾은 여자보다도 남자가 추종성을 더 중요시하며 모임에서의 반응에 性別의 차이를 보여 남자는 그들의 衣裳이 他人과 같지 않

으면 어색하게 느끼고 여자는 衣裳이 갈을때 불쾌감을 느낀다고 지적했다. Hambleton¹⁴⁾등도 같은 결과를 보여 여학생에게는 他人과 다르게 보이려는 욕구가 가장 중요시되고 있으며 남학생은 집단의 수용에 더 민감하다고 했다. 衣服에 대한 흥미에서도 여학생이 의복의 유행에 관심이 많으며 流行의 受容度도 높고 의복에 대한 자각도 더 크다고 한다.^{15~17)} 정숙성에서는 남·녀 모두 높게 나타나지만 특히 여학생의 경우가 남학생보다 의미있게 높은 경향을 보여 衣服行動에서의 男·女 차이를 밝히고 있다.¹⁸⁾ 한편, 衣服行動과 環境의 變因으로서 연령·교육수준·직업·수입과의 관련성에 대하여 Hurlock¹⁹⁾은 높은 상관성을 언급했고 Rosencranz는 고연령여성보다 젊은 여성이 흥미가 높으며 수입이 많을수록 도시에 사는 사람일수록 높다고 했다. 한편 Boswell은 형제수가 많을수록 의복에 대한 흥미가 높으며 父의 敎育과 職業수준이 높을수록 의복관심도가 낮다고 보고했고²⁾ Perry¹⁹⁾등은 衣服行動은 나이·직업·수입·교육수준의 어떠한 인구통계학적 변인과의 관련이 없으며 自我實現性이 衣服行動 예측에 더 중요한 요인임을 밝혔다.

이상의 先行研究에서 가정환경과 의복행동의 관련을 알 수 있었으며 또한 자아존중감과 의복행동과도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었으나 상호관련적인 측면에서 다루어졌다. 자아존중감은 일관성있는 성격특성이며 행동은 성격에 의해 조건지워진다. 따라서 자아존중감은 개인이 갖고 있는 성격특성의 한 측면이며 이는 행동을 유발시키는 동기(motive force)적인 면이 더 강하게 작용하리라 사료된다. 물론 누적된 의복행동에 의해 자아존중감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있겠으나 본 논문에서는 한 시점에서 측정된 자아존중감과 의복행동에서 내적 성향인 자아존중감이 衣服行動을 유도하리라 가정하고 그 영향의 정도를 알아보고자 다음과 같은 가설적 모형을 설정하였다.



[그림 1] 研究의 假說的 模型

Ⅲ. 假說 및 用語定義

1. 假說

假說 1. 靑小年의 性別, 家庭環境變因은 自我尊重感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假說 1-1〉 男·女 性別은 自我尊重感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假說 1-2〉 家庭環境變因은 自我尊重感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假說 2. 靑少年의 性別, 家庭環境變因, 自我尊重感은 衣服行動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假說 2-1〉 男·女 性別은 衣服行動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假說 2-2〉 家庭環境變因은 衣服行動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假說 2-3〉 自我尊重感은 衣服行動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用語定義

1) 性格特性

自我尊重感(self-esteem) : 自己自身에 대해서 習慣的으로 만들고 維持하는 評價的인 態度이며 個人이 그 自身을 有能하고 重要하며 成功의이고 價値가 있다고 믿는 정도²⁰⁾

2) 衣服行服^{9), 21)}

· 興味性(interest) : 衣服에 관심을 가지며 研究하고 여러가지로 연출해 보며 實驗해 보고자 하는 行動.

· 審美性(aesthetics) : 美的 感覺이 높으며 流行과 無關하게 아름다운 外貌를 위해 衣服을 사용하며 청결한 옷차림을 좋아하는 行動

· 心理的 依存性(dependence) : 衣服이 주는 느낌에 의해 기분, 감정변화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行動

· 身體的 便安感(comfort) : 온도나 질감에 대한 身體的 反應과 몸에 맞는 정도에 따른 적합성과 관련된 行動

· 社會的 承認(approval) : 所屬感이나 他人의 認定을 얻기 위해 집단에 同調的인 衣服行動.

· 貞淑性(modesty) : 눈에 띄지 않는 衣服을 좋아하며 色相, 디자인, 露出에 있어 保守的인 行動.

· 注意集中性(attention) : 독특한 옷에 관심이 많으며 衣服을 통한 지위나 호감, 위신을 추구하려는 行動

· 管理性(management) : 衣服을 計劃性있게 구매하며 時間, 금전, 정력을 경제적으로 사용하는 行動.

IV. 研究方法

1. 測定道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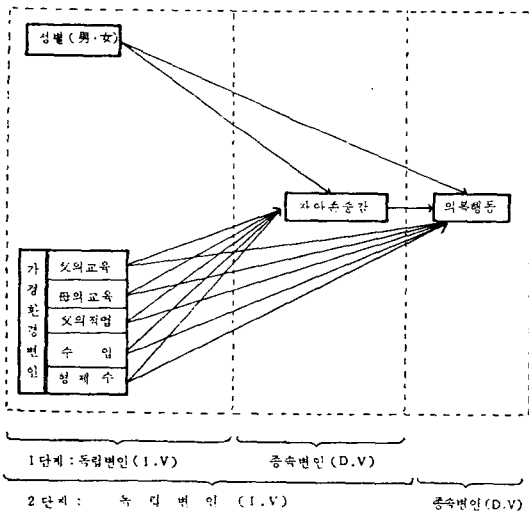
1) 自我尊重感 : Robinson & Shaver²³⁾의 Cooper-smith Self-Esteem Inventory 中에서 11문항을 사용했다.

2) 衣服行動 : Creekmore¹¹⁾(60문항), 崔惠善¹²⁾(11문항), 本研究者(12문항)의 총 83문항을 2次の 예비조사로 문항분석하여 Cronbach's α 로 信頼度가 입증된 35문항을 사용했다.

3) 家庭環境變因 : 父의 직업은 이 기숙이 개발한 무직(1)에서 높은순위(6)의 여섯단계로 구분했고²⁴⁾ 母의 직업은 有·無단을 조사했다. 父母의 교육은 0년(1)에서 17년이상(5)의 5단계로 했고 수입은 10만원미만(1)에서 100만원 이상(6)으로, 형제수는 2명이하(1)에서 7명이상(4)의 단계로 구분하여 사용했다.

2. 調査對象 및 資料分析

조사대상은 부산시내 인문계 고등학교 男高; 25개교 女高; 19개교* 中에서 區別로 선택하여 선정된 학교의 2학년 中에서 임의의 학급을 조사했다. 설문지는 1984년 6월 20日에서 7월 5日에 남·여 각각 400부씩을 배부하였고 회수된 자료 中 최종 男 335부 女 308부를 분석대상으로 사용했다. 資料分析은 문항의 신뢰도 검증 및 독립변인, 매개변인, 종속변인 간의 상관을 알아보기 위해 Pearson 相關係數를 구했고 假說檢證을 위해



[그림 2] 經路分析 模型(Path Model)

* 1983년도 기록

<表 1> 자아존중감에 대한 독립변인의 회귀분석(1) 결과표

독립변인	자아 존중감	
	β	F 값
성 별	-.088	4.859
父 의 직 업	.051	1.219
父 의 교 육	.034	.248
母 의 교 육	.011	.028
수 입	.054	1.465
형 제 수	.038	.878
R ²	.01798	

重多回歸分析을 사용하여 經路分析을 하였다.

V. 研究結果 및 論議

1. 經路分析模型

· 1단계 重多回歸分析; 독립변인은 성별과 가정환경변인, 종속변인은 자아존중감이었다.

· 2단계 重多回歸分析; 독립변인은 성별과 가정환경변인, 자아존중감이며 종속변인은 의복행동이였다.

2. 假說에 대한 分析과 論議

1) 假說 1.

性別은 $p < .001$ 에서 自我尊重感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는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았다. Mckee & Sherriffs²⁵⁾에 의하면 전형적인 男女에서는 男子의 自我尊重感이 높다고 했고 10세~13세의 아동을 연구한 박춘심²⁶⁾은 男兒尊重이 높은 父母 밑의 女兒가 自尊感이 현저히 낮게 나타난 것과 일치한다.

父의 직업·父母의 교육·수입·형제수의 家庭環境變因은 自我尊重感에 유의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自我가 가정환경과 다소 관련은 있으나 일관성있는 것은 아니라는 김명자²⁷⁾와 총자아 긍정은 가정의 물리적 환경(부모의 교육·수입·직업)과는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다는 金豊三²⁸⁾과도 일치한다. 따라서 <가설 1-1>은 증명되었고 <가설 1-2>는 기각되었다.

2) 假說 2.

性別은 興味性, 審美性, 心理的 依存性, 身體的 便安感, 社會的 承認, 貞淑性, 注意集中性, 管理性的 衣服行動 下位尺度 모두에 $p < .001$ 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으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았다. 이는 여학생이

〈表 2〉 의복행동에 대한 독립변인 회귀분석(Ⅱ) 결과

독립변인	흥미성		심미성		심리적 의존성		신체적 편안감	
	β	F값	β	F값	β	F값	β	F값
자아존중감	-.103	7.875***	.086	5.443***	-.092	5.735***	-.029	.548
성별	.352	89.374***	.337	81.141***	.209	28.617***	.105	6.873***
父의 직업	-.057	1.751	.052	1.458	.030	.436	.014	.097
父의 교육	-.026	.172	-.101	2.477**	-.039	.346	-.069	1.000
母의 교육	.035	.300	.131	4.179***	.004	.003	.078	1.291
수입	.144	11.769***	.066	2.453*	.124	7.858***	.056	1.550
형제수	.015	.148	.018	.221	-.047	1.374	.047	1.328
R ²	.16108		.15052		.07590		.02296	
	사회적 승인		정숙성		주의 집중성		관리성	
	β	F값	β	F값	β	F값	β	F값
자아존중감	-.242	41.983***	-.050	1.608	-.159	17.116***	.167	19.219***
성별	.231	37.181***	.150	14.158***	.214	30.921***	.262	45.963***
父의 직업	.055	1.583	.100	4.702***	.020	.207	.005	.011
父의 교육	-.022	.115	-.088	1.677	.005	.007	-.054	.671
母의 교육	.045	.489	.083	1.463	.019	.080	.082	1.525
수입	.004	.008	-.096	4.613***	.142	10.730***	-.009	.042
형제수	-.017	.195	.031	.599	-.002	.004	-.021	.280
R ²	.12767		.04157		.10495		.09493	

*p<.05; **p<.01;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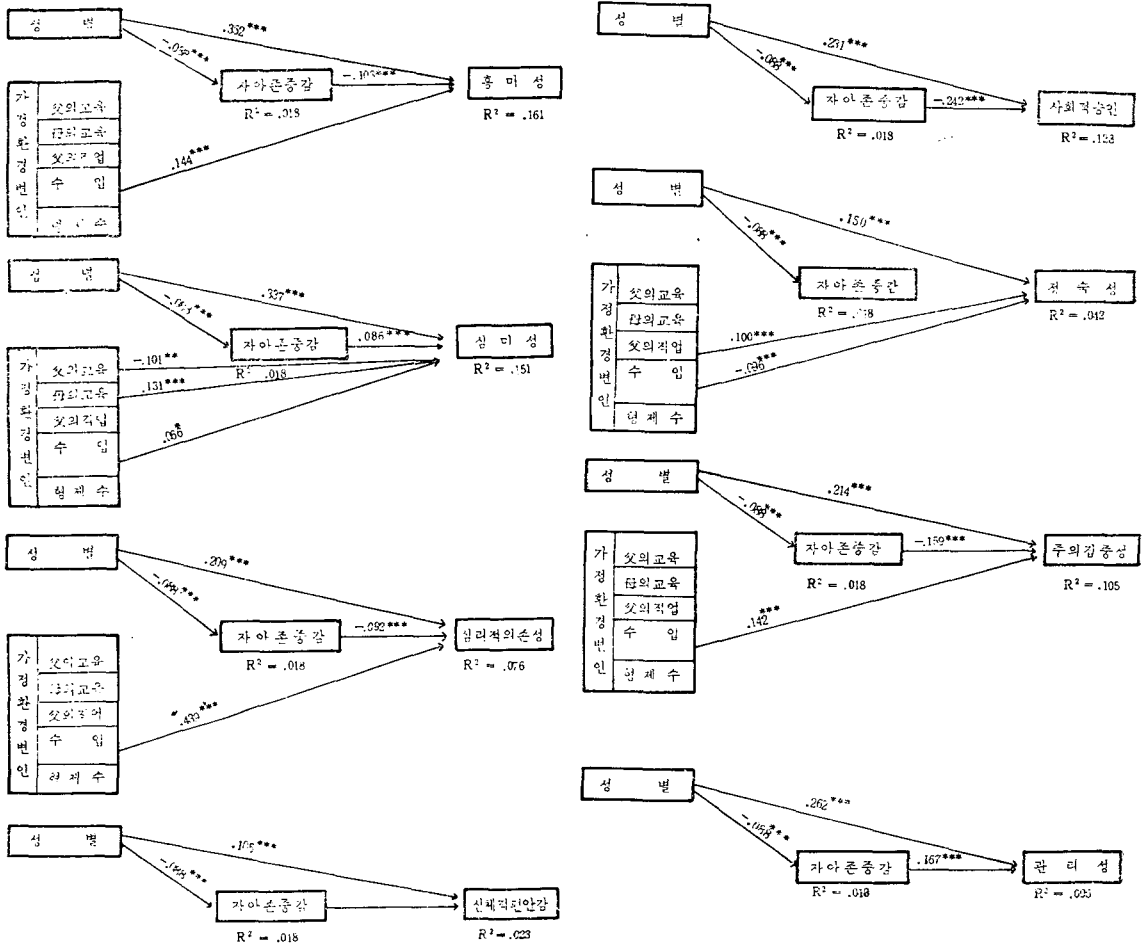
남학생보다 衣服興味が 더 크고 貞淑性이 높다는 연구와는 일치하나 남학생이 집단에 同調인 衣服을 입는다는 결과와는 차이를 보였다.^{5),14),18),29)} 家庭環境變因에서 p<.05의 유의적인 변인을 살펴 보면 父의 교육은 審美性에 不的 관계이며 父의 직업에는 貞淑性이 正的 관계가 있다. 母의 교육에는 審美性이 높은 正的 관계이며 이는 주부를 대상으로 한 김정호³⁰⁾에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의복의 審美性을 중요시 한다는 결과와 연결되어 가정에서 의복 구매를 주로 담당하는 母의 영향이 자녀에게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수입은 興味性, 審美性, 心理的 依存性, 注意 集中性에는 正的으로, 貞淑性에는 不的으로 관계하여 선행 연구와 일치한다.³¹⁾ 自我尊重感은 身體的 便安感和 貞淑性을 제외한 모든 衣服行動에 p<.001에서 유의적인 관련을 보였는데 흥미성, 심리적 의존성, 사회적 승인, 주의집중성과는 不的이며 심미성, 관리성과는 正적 關係였다. 이는 自我尊重感이 높으면 심리적으로 안정하여 社會적 承認에 대한 의존도가 적으므로 의복을 통한 社會적 인정에 관심이 적고 의복동조나 특별한 주의를 끌

려하지 않는다는 것과 自我尊重感이 의복의 심미적인 면과 관리적인 면에 正的이며,^{9),11)} 衣服興味와 自我實現性이 不的으로 관계한다는 것과도 일치점을 보인다.¹⁹⁾ 이상에서 〈가설 2-1〉은 긍정되었고 〈가설 2-2〉와 〈가설 2-3〉은 부분적으로 긍정되었다.

3. 理論的 模型에 의한 分析

[그림 3]는 〈표 1〉 <표 2〉를 바탕으로 하여 性別, 家庭環境變因과 自我尊重感이 衣服行動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假說的 模型으로 나타낸 것이다.

興味性에는 性別, 수입, 자아존중감의 順으로 영향을 주고 性別의 직접적인 영향($\beta=.352$)이 自我尊重感을 거치는 간접적인 영향($0.088 \times 0.103 = 0.0091$)보다 더 크다. 審美性에는 性別, 母의 교육, 父의 교육, 자아존중감, 수입의 順으로 영향을 미치며 性別의 직접적인 영향($\beta=.337$)이 간접적인 영향($0.088 \times 0.86 = 0.076$)보다 더 중요하며 心理的 依存性에는 수입, 性別, 自我尊重感의 順이며 性별의 직접적인 영향($\beta=.209$)은 간접적인 영향($0.088 \times 0.092 = 0.0081$)보다 더



• 제시된 값은 값임

* p < .05

** p < .11

*** p < .001

[그림 3] 經路分析 結果

크다. 身體的 便安感에는 性別만이 영향을 미치며 社會的 承認에는 自我尊重感, 性別의 順이고 性別의 直接的인 영향($\beta = .231$)이 間接적인 영향($0.088 \times 0.242 = 0.021$)보다 크다. 貞淑性에는 性別, 父의 職業, 수입의 順이며 注意 集中性에는 性別, 自我尊重感, 수입의 順이고 性別의 直接的인 영향($\beta = .214$)이 間接적인 영향($0.088 \times 0.159 = 0.014$)보다 크며 管理性에는 性別, 自我尊重感의 順으로 영향을 미치며 性別의 直接的인 영향($\beta = .262$)이 間接적인 영향($0.088 \times 0.167 = 0.015$)보다 크게 나타났다.

VI. 結論 및 提言

남 · 녀 高등학교生을 標集對象으로 自我尊重感이 衣服

行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이상의 결과에서

1) 自我尊重感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性別이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게 나타난 것은 아동의 자아가 父母의 양육태도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것²⁶⁾으로 보아 父母의 男兒先好태도에서 나온 결과로 보아진다.

가정의 환경적 변인은 自我尊重感에 有意的인 영향을 주지 못함이 밝혀졌는데 이는 自我가 가정의 물리적 환경보다는 父母의 態度에 더 크게 기인된다는 연구를 뒷받침해 준다.^{27, 28)}

2) 性別은 의복행동 8가지 하위척도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여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衣服에 대한 흥미성, 심미성, 심리적 의존성, 신체적 편안감, 사회적 승인, 정숙성, 주의집중성이 높았다. 이는 衣服에 대한 關心뿐만 아니라 衣服이 心理的 · 身體的으로 남학생에게 보

다는 여학생에게 더 큰 의미를 가짐을 알 수 있다.

家庭環境變因에서 母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審美性이 높고 수입이 많을수록 興味性, 審美性, 心理的 依存性, 注意集中性이 높으며 貞淑性이 낮았다. 이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들^{30,31)}과 일치하는 것으로 母의 衣服에 대한 價値나 態度가 자녀에게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3) 自我尊重感은 衣服行動中 身體的 便安感과 貞淑性과는 無關했으며 自我尊重感이 높을수록 衣服의 審美性과 管理性은 높아지고 興味性, 心理的 依存性, 社會的 承認, 注意集中性은 낮았다. 이는 자아존중감이 높으면 심리적으로 안정하여 사회적 승인에 대한 의존도가 적으므로 의복을 통한 사회적 인정에 대한 관심은 적으나 옷을 아름답게 입고 경제적으로 관리한다고 볼 수 있다.

後屬研究로써 自我가 완전히 정립된 연령층을 標集對象으로 하여 自我尊重感이 衣服行動에 미치는 영향과 만족한 衣服이 自我尊重感 향상에 주는 영향을 研究했으면 한다.

參 考 文 獻

- 1) Drake, Mary Frances and Ford, Imogene M.: Adolescent clothing and adjustment,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7, 283-291(1979)
- 2) Ryan, Mary Shaw: Clothing: A study in human behavior, N.Y.: Holt, Rinehart and Winston, Inc., 82-85, 299-301(1966)
- 3) 장병립: 청년심리학, 중판, 서울: 법문사, 273-276(1980)
- 4) Hurlock, Elizabeth B.: The Psychology of dress, New York: Times Co., 173-205(1976)
- 5) Horn, M.J.: The Second Skin, Boston: Houghton Mifflin Co., 168-169, 145-146(1968)
- 6) Kelley, Elearnor A. and Eicher, Joanne B.: A longitudinal analysis of popularity, group membership, and dress, *Journal of Home Economics*, 62, 246-250(1970)
- 7) Takahashi, Charlene and Newton, Audrey: Perceptions of clothing conformity, *J. of Home Economics*, 59, 720-723(1968)
- 8) Morganosky, Michelle and Creekmore Anna M.: Clothing influence adolescent leadership roles, *Home Economics Research J.*, 9, 356-362 (1981)
- 9) Humphrey, C., Klaasen, M. and Creekmore, A.M.: Clothing and self concept of adolescents, *J. of Home Economics*, 63, 246-250(1971)
- 10) Ford, Imogene M. & Drake, Mary Frances: Attitudes toward clothing, body and self: A comparison of two groups, *Home Economics Research J.*, 11, 189-196(1982)
- 11) Creekmore, A.M.: Clothing and personal attractiveness of adolescents related to conformity, to clothing mode, peer acceptance, and leadership potential, *Home Economics Research J.*, 8, 203-215(1980)
- 12) Parrish, P.C.: Self-perception relative to selected clothing attitude and practices and clothing usage, *Home Economics Research Abstracts*, 44(1975)
- 13) 이경손·강혜원: 성인 남자의 자아개념과 의복행위와의 상관연구—의복만족도, 과시성, 유행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6, 9-16(1982)
- 14) Hambleton, Kaye Brogger & Roach, Mary Ellen & Ehle, Kathleen: Teenage appearance: Conformity, preferences, and self-concepts, *J. of Home Economics*, 64, 29-33(1972)
- 15) 김병미: 청소년의 의복행태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13(3), 233-239(1975)
- 16) Richards, Elizabeth A. and Hawthorne Ruth E.: Values, body cathexis, and clothing of male university students, *J. of Home Economics*, 63(3), 190-194(1971)
- 17) 이영선: 자유—보수주의적 태도와 의복에 대한 태도와의 관계연구—유행과 동조성, 개성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8(1), 69-74(1984)
- 18) 이희남: 남녀고등학생의 의복 실태에 관한 연구—부산시 남녀고등학생을 중심으로—, *부산여자대학교 가정학연구*, 4, 11-18(1984)
- 19) Perry, Marcia O'Reilly, Schutz, Howard G. and Rucker, Margaret H.: Clothing interest, self-actualization and demographic variables, *Home Economics Research J.*, 11, 280-288(1983)
- 20) Gilmore, John V.: The Productive Personality, Albion Publishing Company, 14(1974)
- 21) Creekmore, A.M.: Methods of Measuring clothing variables, *Michigan Agricultural Experiment Station Research Bulletin*, 10, 1-10(1947)

- iment Station Project, Michigan State University, 45(1966)
- 22) 최혜선 : 의복행동과 사회적 안전감-불안감의 관계에 대한 연구-서울시내 여고생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7-18(1981)
- 23) Robinson, J.P. and Shaver, P.R.: Measures of Social psychological attitudes, Hunarbor: Survey Research Center, Institute for Social Research, 84-87(1973)
- 24) 이기숙 : 청소년기 부모의 가족발달과업수행태도에 관한 고찰, 부산여자대학 가정학연구, 5, 37-48 (1984)
- 25) Borgatta, Edgar F. and Lambert, William W.: Handbook of Personality theory and research, Chicago: Rand McNally Co., 769-770(1968)
- 26) 박춘실 : 부모의 관심이 아동의 자아개념 발달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14(1), 97-116(1976)
- 27) 김명자 : 여학생의 자아개념과 가정환경에 관한연구, 대한가정학회지, 16(4), 75-83(1978)
- 28) 김풍삼 : 청년기에 있어서 가정환경변인이 자아개념과 친자관계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0(1978)
- 29) 강혜원 : 대학생의 개성과 유행을 중심으로 한 의상행위와 성격특성과의 관계, 연세논총, 11, 349-374(1974)
- 30) 김정호 : 사회계층과 의복행태-서울시내 가정주부를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2(2), 45-52 (1978)
- 31) 최경희 : 여고생의 의복행동과 성역할태도와의 관계-유니섹스 의복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4(1983)